

##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

김준범\*\* · 최유일\*\*\*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학술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7,109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중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전체의 2.6%(186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유경험 청소년일수록 거의 모든 범죄피해 유형에 노출될 승산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을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무질서 수준에 따라 '고', '중', '저'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무질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중피해 유경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모형 분석 결과, 가출 유경험 여부와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은 모두 다중피해 위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가운데, 가출 무경험 청소년의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증가에 따른 다중피해 위험은 3.65배 증가하는 반면,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최대 6.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 유경험 청소년에게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이들의 다중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적 개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학술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출, 다중피해, 지역사회 무질서, 잠재프로파일분석, 음이항회귀분석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교신저자, dbdlfkqgh@naver.com

## I. 서론

2019년 5월 가출청소년을 위시한 이른바 ‘위기청소년’ 관련 이슈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의 골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화두가 된 것은 바로 지역사회 통합시스템 구축이었다(정부24, 2019). 이는 위기청소년 보호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보호력 제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출은 오래된 청소년 이슈이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은 가출 상태에 있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아울러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정의된다(황순길 외, 2016: 5 재인용). 하지만 청소년 가출은 흔히 폭력 및 재산비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탓에(치안정책연구소, 2013)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문제중심적 성격이 강했다(유서구, 2017).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출의 원인, 가출 실태, 범죄 피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 비교적 최근에는 ‘가출의 비범죄화’에 관한 이슈(김지혜, 2013)가 주목을 받으며 이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즉, 오늘날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한 흉악 강력범죄에 있어 청소년 피해자의 비중은 28.8%(9,513명)에 육박하는 가운데(법무연수원, 2019), 가출을 한 청소년일수록 이러한 직접적인 범죄 피해(이창훈, 안계원, 김원기, 2017; 구길모, 2014; 최순중, 2011) 및 각종 범죄 목격경험 등 간접피해도 유의미하게 높음(Walsh & Donaldson, 2010)이 규명되며 직·간접 피해를 아우르는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적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가출청소년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이창훈 외, 2017; Walsh & Donaldson, 2010; Williams, 2010). 가출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그들의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속된 보호체계가 불안정하여 매춘, 폭행, 강도와 같은 피해를 당하기 쉽다(Morewitz, 2016).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최근 전체 형법범죄는 절대적 수치가 감소추이에 있지만(2013년 940,419건 → 2017년 834,679건)(법무연수원, 2019),

20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비중은 2013년 8.2%(77,122명)에서 2017년에는 8.9%(74,159명)로 나타나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 폭력범죄 피해자 비중만을 따로 살펴볼 경우는 전체의 약 12.3%(25,291명), 재산범죄는 6.9%(34,862명)인 반면,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한 흉악 강력범죄 피해자만을 고려할 경우 청소년 피해자의 비중은 28.8%(9,51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9).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무질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다(Akers, Sellers & Jennings, 2017).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활동반경 좁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음에 따라 무질서 수준은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윤희중, 2015). 실제로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은 낮은 수준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을 의미하는 이웃주민의 무관심 등 과도 연관되어 범죄가 발생해도 지역사회 자원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보호력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포하여 특정 대상의 범죄피해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열, 공운경, 2008). 실제로 김준호, 박현수와 박성훈(2010)이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무질서 심할수록 범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이 무질서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무질서한 환경에의 노출은 범죄자의 접근성을 높여 범죄의 용이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Johnson, 2010) 궁극적으로는 다중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움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출경험, 횡수, 가출패 형성 등 가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김상호, 2018; 오세연, 2018) 범죄피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일피해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다(김중곤, 심희섭, 2018; 최순실, 이은영, 2018; 민가영, 2018; 유진이, 허일수, 2018). 또한 지역체계 요인에 집중하더라도 학교, 경찰 등과 같은 공식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거나(김상호, 2018; 홍서아, 추봉조, 2018), 지역사회 무질서로 인한 비행행동의 유발 등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계층으로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 여부와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가 다중피해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가중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가출경험과

다중피해의 직접적 관계보다 지역사회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으로 다중피해 위험이 가중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출경험 여부와 지역사회 무질서의 상호작용에 따른 다중피해 위험의 증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가출과 다중피해

우리나라의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며 매년 약 2%를 상회하는 가운데 2018년 기준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2.6%로서 교급별로는 중학생 3.4%, 고등학생 3.1%, 그리고 초등학생도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a). 일반적으로 가출이란 행위는 청소년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탈행위의 하나로서(김지연, 정소연, 2015), 혹은 흔히 재산 및 폭력비행으로 이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비행의 일환으로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다(박지선, 2015; 이시연, 2018;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치안정책연구소, 2013).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을 위태롭게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위기요인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범죄피해이다.

한편, 오늘날 범죄와 같은 피해는 분절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목격경험과 같은 간접피해 역시도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됨에 따라(Wilson, Stover & Berkowitz, 2009 참조)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즉, 한 체계에서의 범죄 내지는 폭력피해 노출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망라한 다른 체계에서의 직·간접 피해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는 다중피해의 기본 아이디어는 비교적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Turner et al., 2017; Andrews et al., 2018; Finkelhor et al., 2013). 일례로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 4,503명을 대상으로 다중피해 실태를 분석한 Finkelhor et al.(2013)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전체의 약 48%의 아동 및 청소년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15%의 청소년은 무려 여섯 가지 형태의 폭력피해에 노출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중피해적 맥락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직·간접 범죄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선행연구(Walsh & Donaldson, 2010; Heerde & Hemphill, 2016)를 근거로 가출경험은 다중피해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직접적 범죄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아우르는 다중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

지역사회 무질서는 주민들의 무관심, 지역사회 자체의 통제력 부족으로 안전하고 질서 잡힌 환경을 유지할 수 없음이 관찰되는 전반적인 환경을 뜻한다(Perkins & Taylor, 2002). 개념적으로는 관리되지 않은 건물 및 차량, 길거리의 쓰레기, 파손된 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와 술주정꾼, 범죄자들의 활보와 같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할 수 있다(Ross & Jang, 2000).

무질서한 지역사회에 사는 개인은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쉽다(구교태, 2016). 사회해체이론에서는 이를 무질서한 지역사회일수록 경찰활동과 같은 공식적 통제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Roh & Oliver, 2005) 무질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약한 결속으로 자조적 노력 등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까지도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Akers et al., 2017; 정진성, 2010). 구체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의 거주민은 일반적으로 이웃주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Ross & Mirowsky, 2009), 지역 내 유대감 형성에 소극적이다(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그래서 집 앞에 쓰레기가 널려 있어도 방치하는 등 지역사회 유관 일에 무관심하게 대처하기 쉽고,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대처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범죄가 발생하여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공식적 통제 요청의 가능성이 낮아, 궁극적으로 범죄발생에 자양분을 제공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해체로 인한 무질서의 심화는 ‘거리의 규범(code of street)’을 만들고, 이를 강화한다(Anderson, 1999). 거리의 규범이란 폭력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용납하기 쉬운 사고방식을 조장하는 등 이른바 ‘거리’에서 통용되는 제반 문화를 의미한다

(Anderson, 1999: 70). 그런데 거리의 규범을 다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이를 ‘내사’하여 행하는 비행 및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경향성이 있다(곽대훈, 2019; 신혜진, 2017; 김혜영, 윤우석, 2015).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거리의 규범이 성인 등 타인에 의해 거리에 내몰린 청소년에게 ‘투사’될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피해에 취약한 희생양이 될 공산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실제로 지역사회 무질서로 인한 범죄를 위시한 다중피해에 특히 취약한 대상은 바로 청소년이며(Finkelhor, 2008), 가출은 이를 더욱 가중 시키는 요인이 된다(Johnson, 2010). 이는 가출이라는 행위 자체에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서의 자원 부족을 내포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청소년들 일수록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에 노출되기 쉽고, 사회적 무질서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Baron, 2003 참조). 그리하여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경우 가출청소년들이 경찰과 접촉이 잦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들의 범죄피해 예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이창훈 외, 2017), 불안정한 지역사회의 무질서속에서 가출청소년은 다중피해에 취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준호, 박현수와 박성훈(2010)이 개인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심각한 지역사회 무질서가 범죄피해를 예측하는 가운데 성별, 학력 등 개인적 특성이 무질서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무질서 수준 자체만으로도 다중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출여부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출, 다중피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가출은 다중피해를 예측하는가?
2. 지역사회 무질서는 다중피해를 예측하는가?
3. 다중피해 비율은 가출유무와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조사’에서 수집된 횡단데이터이고, 이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다운을 받아 활용한 것이다. 원데이터의 표본학교 추출은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지역 및 학급별로 분포를 고려하여 다단계 층화군집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학급선정은 편의 표집을 사용하여 1개 학교에서 2개 학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학생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생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조사 당시 응답기준 기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가 중첩되어 중, 고등학생 중심의 조사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총 7,1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 측정도구

##### 1) 가출여부

가출여부의 경우 ‘범죄 또는 비행 경험’ 조사 항목에서 최근 1년 간 ‘가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출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1)’, ‘있다(2)’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출여부는 집단 구분에만 사용하였다.

##### 2) 다중피해

다중피해 경험은 Finkelhor et al.(2005)이 제시한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 개념에 근거하여 조작적 정의하였다. 연구에서는 성장기 경험할 수 있는 다체계적 피해를

다중피해라 정의하며 전통적 범죄(conventional crime), 가정 내 학대경험(childhood maltreatment), 또래·형제자매 폭력(peer/sibling violence), 성폭력(sexual violence), 그리고 간접폭력목격(witnessed indirect violence) 등 5개 범주 기준, 34가지의 세부 피해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중피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지난 1년간 대상자들이 경험한 다중피해 중 가정 내 학대경험과 형제자매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의 폭력피해만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적 범죄는 도난, 절도, 무기소지 폭행, 무기미소지 폭행, 협박, 사기, 소매치기 7개 항목, 또래폭력은 집단폭행,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3개 항목, 성폭력은 성폭행, 성인에 의한 성추행, 또래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4개 항목, 그리고 간접폭력목격은 무기소지 폭행, 무기 미소지 폭행, 무기소지 절도, 무기미소지 절도, 살인 5개 항목을 활용하여 총 19개 세부 피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피해 경험 있음은 “1”로, 없음은 “0”으로 조작하였으며, 최종모형 분석 시에는 모든 경험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 3)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무질서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동네, 학교주변 및 응답자가 자주 가는 장소 등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를 묻는 14개 문항을 활용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찰활동을 묻는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1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무질서는 크게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 나누어 측정한다 (Franklin et al., 2008). 한편, 실증적 연구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와 경찰활동은 역의 관계에 있음이 규명되었는데(이선범, 2018; 이명우, 황진아, 박한호, 2014),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무질서가 심한 지역일수록 경찰활동도 저조하고 그 역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뿐만 아니라 경찰활동 역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무질서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무질서 변수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 합산 값을 산출하여 타당도의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각 문항에 따른 응답패턴을 바탕으로 집단을 나누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고 이로



써 산출된 집단 값을 가중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무질서를 묻는 문항은 ‘우리 동네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네에서는 금품갈취,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 변인은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술집, 리 학교주변에는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그리고 ‘우리 학교주변에는 술집, 나이트클럽,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당구장, 여관, 모텔, 등이 많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활동의 경우는 ‘우리 학교주변에는 CCTV나 경찰지구대(파출소, 경찰서)가 있다’, ‘우리 학교주변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이나 경찰차가 자주 볼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이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무질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933으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가정형태, 가구 월소득을 투입하였다. 성별은 ‘여자 청소년(1)’, ‘남자 청소년(2)’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15세부터 18세까지 연속 변인 화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형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동거가족을 묻는 문항에서 ‘아버지(1)’와 ‘어머니(2)’를 모두 체크한 인원을 ‘양부모가정(0)’, 그 외는 ‘한부모가정 외(1)’라고 조작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월소득은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100만원 미만(1)’부터 ‘500만원 이상(8)’으로 구분되어 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진다. 첫째, 청소년 가출은 다중피해를 예측한다. 둘째, 지역사회 무질서는 다중피해를 예측한다. 셋째, 청소년 가출과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중피해 위험비는 증가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방법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고,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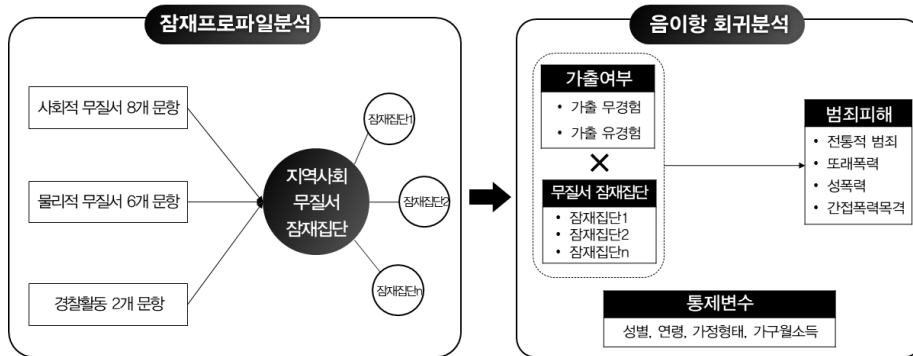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첫째로 지역사회 무질서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 지표별 응답확률값을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례별 응답패턴에 따라서 사후계층소속확률을 산출하고, 이 값을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구분하는데, 이는 군집분석과는 달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Lanza et al., 2010: 이상균 그레이스정, 유조안, 2015 재인용).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무질서는 가중변인으로서, 독립변인인 가출여부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가출여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준거집단은 “가출 무경험 집단, 지역사회 무질서 저위험 집단”으로서, 준거집단 대비 다른 집단(가출 무경험 집단, 지역사회 무질서 중위험 집단, 가출 유경험 집단, 지역사회 무질서 고위험집단 등)이 가지는 다중피해 위험비(IRR, incident risk ratio)를 산출하기 위해 음이항 회귀분석(NBR,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중피해는 가산변인으로 다중피해를 당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포가 더욱 많기 때문에 과산포의 형태를 보인다(표 1, 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과분산과 영과잉의 특성을 보이는 변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음이항 회귀분석은 적절한 분석방법이 된다. 분석에는 Mplus 6.0,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의 피해유형 개수별 분포

피해유형 개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유경험 인원(명)	5,834	722	256	127	50	37	26	12	11	6	2	3	1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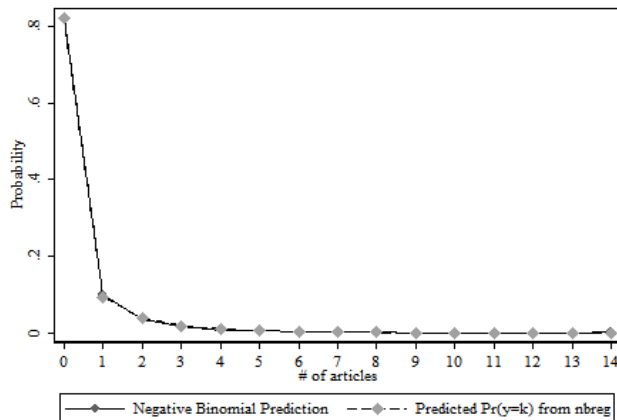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유형 개수에 따른 음이항 분포 도식

## IV. 연구결과

### 1.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중피해 양상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자 47.1%(3,347명), 여자 52.9%(3,762명)로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나,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61.8%(115명), 여자 38.2%(71명)으로 남자청소년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형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부모가정이 84.0%(5,973명)

이었지만,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는 양부모가정의 비중이 81.7% (152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월소득의 경우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64.6%(4,59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백만원 이상’은 26.7% (1,8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는 ‘5백만원 이상’이 37.1%(69명)으로 나타나 전체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평균연령의 경우 전체 청소년은 16.52세인 반면,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16.25로 전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 무질서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값은 22.78점인 반면,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25.13점으로 나타나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무질서 인식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과 지역사회 무질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청소년 (n=7,109) n (%)	가출 여부		t or $\chi^2$
			가출 무경험 (n=6,923) n (%)	가출 유경험 (n=186) n (%)	
성별	남자	3,347 (47.1)	3,232 (46.7)	115 (61.8)	16.671***
	여자	3,762 (52.9)	3,691 (53.3)	71 (38.2)	
가정 형태	양부모가정	5,973 (84.0)	5,821 (84.1)	152 (81.7)	0.752
	한부모가정 외	1,136 (16.0)	1,102 (15.9)	34 (18.3)	
가구 월소득	5백만원 이상	1,896 (26.7)	1,827 (26.4)	69 (37.1)	14.745*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4,591 (64.6)	4,488 (64.8)	103 (55.4)	
	2백만원 미만	622 (8.7)	608 (8.8)	14 (7.5)	
연령(M±SD)		16.52 (1.13)	16.53 (1.13)	16.25 (1.05)	3.254**
지역사회 무질서(M±SD)		22.78 (7.78)	22.71 (7.73)	25.13 (8.99)	-4.192***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다중피해 양상과 더불어 가출 유경험에 따른 범죄유형별 위험승산을 산출하기 위해 성별, 연령, 가정형태, 가구월소득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다중피해에 있어서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중피해 위험승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범죄에서는 ‘무기미소지 폭행’의 승산비가 3.6배(OR=3.6,  $p<.001$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소매치기’ 2.8배(OR=2.8,  $p=.003$ ), ‘협박’ 2.7배(OR=2.7,  $p<.001$ )로 나타났으나 ‘무기소지 폭행’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 폭력의 경우 집단폭행, 집단따돌림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괴롭힘만 가출

표 3  
다중피해 양상 및 가출 유경험에 따른 위험승산 산출

다중피해	전체청소년 (n=7,109) n (%)	가출 무경험 (n=6,923) n (%)	가출 여부		$p$
			가출 유경험 (n=186) n (%)	OR (95% CI)	
<b>전통적 범죄</b>					
도난	186 (2.6)	174 (2.5)	12 (6.5)	2.5 (1.3-4.6)**	.003
절도	186 (2.6)	147 (2.1)	39 (21.0)	2.2 (1.5-3.2)***	.000
무기소지 폭행	9 (0.1)	8 (0.1)	1 (0.5)	4.6 (0.5-37.5)	.147
무기미소지 폭행	186 (2.6)	167 (2.4)	19 (10.2)	3.6 (2.2-6.0)***	.000
협박	186 (2.6)	172 (2.5)	14 (7.5)	2.7 (1.5-4.8)***	.000
사기	420 (5.9)	399 (5.8)	21 (11.3)	2.1 (1.3-3.3)**	.002
소매치기	132 (1.9)	123 (1.8)	9 (4.8)	2.8 (1.4-5.6)**	.003
<b>또래폭력</b>					
집단폭행	43 (0.6)	42 (0.6)	1 (0.5)	0.8 (0.1-6.4)	.905
집단괴롭힘	219 (3.1)	205 (3.0)	14 (7.5)	2.6 (1.5-4.6)**	.001
집단따돌림	340 (4.8)	328 (4.7)	12 (6.5)	1.3 (0.7-2.5)	.282
<b>성폭력</b>					
성폭행(강간[미수])	83 (1.2)	74 (1.1)	9 (4.8)	4.7 (2.3-9.5)***	.000
성추행, 성인	264 (3.7)	248 (3.6)	16 (8.6)	2.5 (1.4-4.2)**	.001
성추행, 또래	43 (0.6)	41 (0.6)	2 (1.1)	1.8 (0.4-7.5)	.409
성희롱	155 (2.2)	143 (2.1)	12 (6.5)	3.2 (1.7-6.0)***	.000
<b>간접폭력목격</b>					
무기소지 폭행	16 (0.2)	12 (0.2)	4 (2.2)	12.6 (4.0-39.6)***	.000
무기미소지 폭행	90 (1.3)	84 (1.2)	6 (3.2)	2.7 (1.1-6.2)*	.020
무기소지 절도	15 (0.2)	13 (0.2)	2 (1.1)	5.7 (1.2-25.7)*	.022
무기미소지 절도	67 (0.9)	61 (0.9)	6 (3.2)	3.7 (1.6-8.7)**	.002
살인	37 (0.5)	36 (0.5)	1 (0.5)	1.0 (0.1-7.5)	.974

\* $p<.05$ , \*\* $p<.01$ , \*\*\* $p<.001$

주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주2. OR값은 가출 무경험 집단 대비 가출 유경험 집단의 승산을 의미하며, 각 값은 성별, 연령, 가정형태, 가구 월소득이 통제된 수치임

청소년의 위험승산이 2.6배(OR=2.6,  $p=.001$ )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성폭력'의 경우 성폭행은 4.7배(OR=4.7,  $p<.001$ ), '성인에 의한 성추행'은 2.5배(OR=2.5,  $p=.001$ ), 그리고 성희롱 3.2배(OR=3.2,  $p<.001$ )로 나타났으나 또래에 의한 성추행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접폭력목격의 경우는 '무기소지 폭행'이 12.6배(OR=12.6,  $p<.001$ )로 가장 높은 승산을 보였고, 그 다음은 '무기소지 절도' 5.7배(OR=5.7,  $p=.022$ )로 나타났다. 하지만 살인 목격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역사회 무질서에 따른 다중피해 양상 검증

지역사회 무질서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은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에 대한 응답자료를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집단의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지수인 BIC값의 경우 5 집단모형에서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4 집단모형, 3 집단모형, 2 집단모형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BIC 수치는 일반적으로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한편, BLRT 모든 집단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n) 집단모형이 이전(n-1) 집단모형에 비해 더욱 적합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경우, 3 집단모형에서 '1'에 가까운 .99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다른 집단모형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지수들과 유의도를 종합한 결과, 3 집단모형의 분류가 가장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최적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분류된 잠재집단이 각 무질서 지표별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잠재계층 1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무질서를 보였으며, 잠재계층 2는 중간 수준, 그리고 잠재계층 3은 높은 수준의 무질서를 보였다. 그리하여 각 집단을 순차적으로 '무질서 저', '무질서 중', 그리고 '무질서 고'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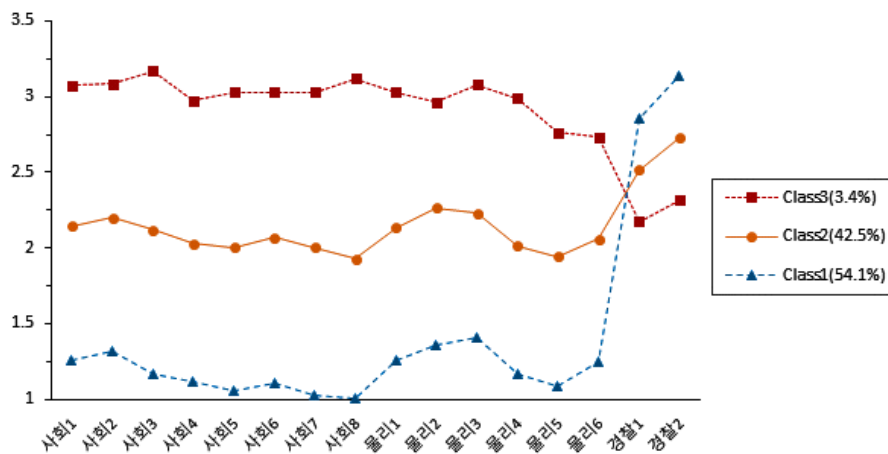
잠재집단 모형별 적합도지수 및 2계층 모형의 할당확률 평균값

모형	AIC	BIC	SSABIC	Entropy	BLRT	$\rho$
2 집단모형	191956.336	192292.923	192137.212	0.986	60336.929	<.001
<b>3 집단모형</b>	<b>178564.432</b>	<b>179017.794</b>	<b>178808.061</b>	<b>0.991</b>	<b>13425.904</b>	<b>&lt;.001</b>
4 집단모형	164471.296	165041.433	164777.678	0.983	12267.638	<.001
5 집단모형	159985.064	160671.975	160354.198	0.980	4520.232	<.001

분류율	잠재집단 수			
	2개(n, %)	3개(n, %)	4개(n, %)	5개(n, %)
잠재집단1	3,847(54.1)	<b>3,848(54.1)</b>	3,332(46.8)	529(7.4)
잠재집단2	3,262(45.8)	<b>3,022(42.5)</b>	2,766(38.9)	3,078(43.3)
잠재집단3		<b>239(3.4)</b>	759(10.7)	484(6.8)
잠재집단4			252(3.5)	2,766(38.9)
잠재집단5				252(3.5)

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SSABIC=(Sample Size Adjusted)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



주: 경찰1, 2는 경찰 순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찰 순찰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함

그림 3. 지역사회 무질서 잠재프로파일유형별 지표반응 패턴

앞서 분류된 무질서 잠재집단에 따른 다중피해 유경험자의 비중과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무질서 고’집단의 다중피해 유경험자는 44.7%(107명), ‘무질서 중’은 27.7%(837명), 그리고 ‘무질서 저’는 18.9%(728명)인 것으로 나타나 무질서 수준에 따른 다중피해 유경험자의 비중도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후검증 결과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역사회 무질서 잠재집단에 따른 다중피해 유경험자 분포 및 사후검증

	잠재집단			F	scheffe
	무질서 ‘고’ (a) (n=239)	무질서 ‘중’ (b) (n=3,022)	무질서 ‘저’ (c) (n=3,847)		
다중피해	107(44.7%)	837(27.7%)	728(18.9%)	72.197***	a > b > c

\* $p < .05$ , \*\* $p < .01$ , \*\*\* $p < .001$

### 3. 모형검증

본 연구의 모형인 가출여부 및 지역사회 무질서 잠재집단에 따른 다중피해 위험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과분산을 보이는 종속변인의 특성상 고려할 수 있는 분석방법인 포이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비교하여 결과값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alpha$ (Likelihood-ratio test)값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전반적인 타당도를 의미하는 LR chi2의 값도 각 모형별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모형 1에서는 가출경험 여부와 무질서에 따른 잠재집단을 투입하여 다중피해 위험 승산인 IRR(incidence risk ratio)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출 무경험 집단에 비해 가출 유경험 집단의 다중피해 위험비는 2.07배( $IRR=2.07$ ,  $p < .001$ )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질서 저’ 집단에 비해 ‘무질서 중’집단의 위험비는 1.57배( $IRR=1.57$ ,  $p < .001$ ), ‘무질서 고’ 집단은 3.62배( $IRR=3.62$ ,  $p < .001$ )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출 유경험 여부 및 무질서 잠재집단의 경우의 수에 따른 다중피해 위험비를 산출한 결과는 모형 2와 같다. ‘가출경험 무, 무질서 저’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가출 무경험 집단의 무질서에 따른 위험승산은 ‘무질서 중’은 1.55배(IRR=1.55,  $p<.001$ ), ‘무질서 고’는 3.65배(IRR=3.65,  $p<.001$ )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출경험 여부와 지역사회 무질서 잠재집단에 따른 다중피해 위험비 검증

	모형 1			모형 2		
	coef	S.E.	IRR	coef	S.E.	IRR
<b>통제변수</b>						
성별(ref. 여자)			1.00			
남자	.06	.06	1.06	.06	.05	1.06
연령	.01	.02	1.01	.01	.02	1.01
가정형태(ref. 양부모가정)			1.00			1.00
한부모, 조손, 기타	.24	.08	1.27**	-.03	.01	1.27**
가구월소득	-.03	.01	0.96 <sup>o</sup>	-.03	.01	0.96 <sup>o</sup>
<b>가출경험 여부(ref. 없음)</b>						
있음	.72	.16	2.07***			
<b>잠재집단</b>						
무질서 저(ref)			1.00			
무질서 중	.45	.06	1.57***			
무질서 고	1.28	.14	3.62***			
<b>집단변인</b>						
(ref. 가출경험 무, 무질서 저)						1.00
가출경험 무×무질서 중				.44	.06	1.55***
가출경험 무×무질서 고				1.29	.15	3.65***
가출경험 유×무질서 저				.55	.26	1.74 <sup>o</sup>
가출경험 유×무질서 중				1.34	.24	3.82***
가출경험 유×무질서 고				1.80	.53	6.08***
LR Chi2(n)		165.28(7)***			166.36(9)***	
Log likelihood		-6258.9367			-6258.4014	
$\alpha$		4082.75***			4076.09***	
n		7,109			7,109	

\* $p<.05$ , \*\* $p<.01$ , \*\*\* $p<.001$

하지만 앞선 준거집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출 유경험 집단의 무질서에 따른 위험비를 산출한 결과 ‘무질서 저’ 집단은 1.74배( $IRR=1.73, p=.022$ ), ‘무질서 중’은 3.82배( $IRR=3.82, p<.001$ ), 그리고 ‘무질서 고’의 경우는 6.08배( $IRR=6.08, p<.001$ )까지 높아져 위험비가 가출 무경험 집단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가출 유경험 청소년일수록 다중피해 위험 승산이 높음과 동시에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까지 더해질 경우 그 위험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한 것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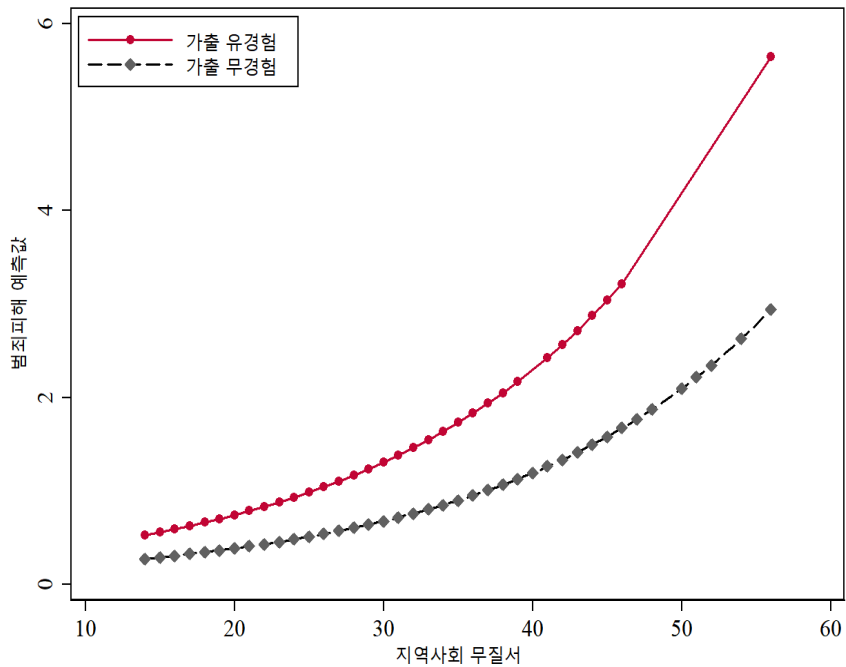


그림 4. 집단별 지역사회 무질서에 따른 다중피해 예측값 도식

##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다중피해 위험을 높이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에 따른 가중효과를 검증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중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전체의 2.6%(186명)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거의 모든 범죄유형에 노출될 승산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가출청소년일수록 가정을 위시한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력에서 벗어나 다중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Walsh & Donaldson, 2010; Williams, 2010; Baron,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범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또래에 의한 폭력보다는 성인에 의한 범죄 유형에 대한 피해 승산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실제로 Finkelhor et al.(2005)의 다중피해 척도에서는 또래에 의한 폭력 자체를 독자적 하위영역으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다중피해는 가해자의 무지소지여부와 함께 본인과의 관계에 따른 가중치를 두었다. 예를 들어 성추행과 같이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가해자와의 관계(모르는 사람, 아는 어른, 또래)에 따라 독자적인 세분화된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 또래에 의한 (성)폭력은 무경험 청소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또래가 아닌 주체에 의해 행해진 전통적 범죄, 성폭력, 간접폭력목적의 세부 범죄유형은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위험 승산이 2.1배에서 최대 12.6배까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지역사회 무질서는 수준에 따라 ‘고’, ‘중’, ‘저’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무질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중피해 유경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특징과 범죄 발생의 관계를 설명한 사회해체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심한 지역일수록 범죄의 강도가 심하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Perkins & Taylor, 2002; 김의명 외, 2019; 김찬선 외, 2019; 구교태, 2016; 노성훈, 2014; 박윤환, 정혜원, 2013)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을 위해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를 토대로 구성하였

으며 무질서 수준에 따라 무질서가 높은 지역은 경찰활동도 적고, 반면에 무질서 수준이 낮은 지역은 경찰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잠재집단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무질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환경의 변화라는 비공식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경찰활동의 증진이라는 공식적 통제력의 변화도 병행해야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모형 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가출경험 여부는 다중피해 위험을 높이는 가운데,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증가에 따라 다중피해 위험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출 무경험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증가에 따라 다중피해 위험이 최대 3.65배 증가하였고,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최대 6.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다중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특히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지역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가출청소년을 다중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적 보호력의 확충 방안으로서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특정 문제에 있어 지역사회를 조망하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무질서는 일반 개인과, 특히 취약한 조건을 가진 특정 집단의 건전한 성장의 선택 및 기회 제한하는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무질서는 개인의 의지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위기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지속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김승섭, 2017; 시민건강연구소, 2018).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청소년 가출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쉼터이용 청소년이 재사회화 관련 서비스를 받고 학업을 지속하고 가정으로 복귀된 비율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이는 현재와 같은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수치임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적체계 외적으로 가출팸 등을 구성하여 생활하는 청소년

년들까지도 쉽터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쉽터 역할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청소년 쉽터 시설은 총 130개 소로서 국비예산은 총 15,57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이를 단순 계산하면 쉽터 1개소 당 예산 총액은 약 119,769천원<sup>2)</sup>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1개소 예산 총액인 109,471천원보다 약 1천만원 증가에 그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서비스 질의 하향평준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백혜영, 강현아, 2016), 게다가 2019년에는 2018년과 달리 사업 목적 자체가 가출청소년의 보호에서 더 나아가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다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19c). 하지만 목적성은 크게 확대 되었으나 예산은 1개소 당 9백만원 증액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지역사회 보호력 제공에 있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이 되는 안정적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다중피해적 관점에 대한 관심의 확산이 필요하고, 청소년 가출 문제와 지역사회 무질서에 따른 다중피해 감소를 피함에 있어 지역사회 경찰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성인보다 폭력 및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된다(Finkelhor, 2008). 이는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아동 및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잠재적 가해자를 가지고 있음에 기인한다. 하지만 여기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0세부터 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약 4,549명의 다중피해 실태를 분석한 Finkelhor et al.(2008)에 따르면 중기 학령기인 약 10세부터 폭력목격과 같은 간접피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14~17세에는 전체 청소년의 절반 수준인 47.6%가 최근 1년 시점을 기준으로 간접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폭력(46.9%), 재산범죄(27.6%) 등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간접피해 역시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을 위시한 정신건강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Klomek et al., 2008),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 증가(Wilson et al., 2009)와 같은 외현화된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에 폭력 및 범죄 목격경험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 역

2) 국비예산 2018년 15,570백만원, 2017년 13,465백만원(여성가족부, 2019b)

시도 다중피해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Finkelhor et al., 200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간접노출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nderson(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질서가 심한 지역사회일수록 거리의 규범이 만연한 가운데,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가출은 범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즉, 가출청소년은 범죄자의 용이한 표적이 되어 각종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 활용 개입에 있어 필수 연계기관으로서 경찰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치안정책연구소, 2013), 현재 가출 청소년 관련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이 부재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단순 선도 및 교육 활동에 국한되어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유관 자원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보호소 내지는 쉼터 종사자는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아웃리치 시 경찰관의 동행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찰은 이를 전담 업무 이외의 것으로 인식하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치안정책연구소, 2013).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역할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적 보호 체계 내실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후 청소년에 대한 인테이크 시에는 다중피해적 관점에 근거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아울러 파악하는 것은 세부적인 개입 전략을 도출에 주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출에 따른 해결중심적 관점의 연구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범죄의 ‘발생’이라는 문제중심적 관점을 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가출한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 내지는 비행에 대한 맥락만을 분석한 측면이 있다(곽대훈, 2019; 신혜진, 2017; 김혜영, 윤우석, 2015; 윤우석, 20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지역사회적 약자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이라는 문제중심적 측면만을 다루어온 경향성이 있다. 또한 이론적 검증에 위해 지역사회 무질서는 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어 무질서와 실질적 범죄 피해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물론 이론 및 개념적으로 지역사회적 맥락은 주로 비행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계적 맥락이 우리 사회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역사회적 맥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유사한 논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이 완벽할 수 없음에 따라 이론에서는 간과된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범죄피해에 취약한 대상이라는 실태(법무연수원, 2019 참조)가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연구보다는 오늘날 실태에 근거하여 모형을 구성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취약 대상이 가지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피해 응답은 대상자의 회고적 방식을 이용한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선행요인으로서의 가출 경험과 후행요인으로서의 다중피해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다중 피해에 관한 응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답은 피해자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황지태, 2010)를 감안하였을 때 응답자 기억의 오류로 인해 내용이 축소 내지는 과장된 응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기록 등과 같이 시점, 사건 등 객관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 상의 한계로 Finkelhor et al.(2005)이 개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중피해 전반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도구를 이용하여 다중피해 유형 전반을 다룰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곽대훈 (2019). 청소년비행원인에 대한 다층적 분석. **과학수사학회지**, 13, 43-49.
- 구교태 (2016). 범죄피해 두려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1), 113-126.
- 구길모 (2014).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5(3), 147-177.
- 권구환, 장수미, 홍석호 (2019).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9(2), 424-468.
- 김상호 (2018). 경찰공무원의 노력보상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2), 3-28.
- 김승섭 (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서울: 동아시아.
- 김의명, 홍송표, 박진이 (2019). 연속수치지도와 유동인구를 이용한 범죄취약 추정지역 추출. **한국지도학회지**, 19(1), 59-68.
- 김준범, 최윤희 (2018). 초기 청소년기 다중폭력피해자의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1), 121-149.
- 김준호, 박현수, 박성훈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 135-172.
- 김중곤, 심희섭 (2018). 부모의 학대, 방임 및 존중의 결여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가출의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2(1), 95-110.
- 김지연, 정소연 (2015). 청소년의 가출횟수 및 청소년쉼터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 특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6(4), 207-237.
- 김지혜 (2013).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보호연구**, 23, 35-60.
- 김찬선, 윤탈관, 박현호 (2019).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과 시민안전의식 및 범죄두려움의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8(1), 111-126.
- 김혜영, 윤우석 (2015). 무질서 인식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감정 및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9-43.
- 노성훈, 조준택 (2014).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45-478.



- 법무연수원 (2019). **2018 범죄분석**. 진천: 법무연수원.
- 민가영 (2018). 피해 경험의 다층성과 피해자다움의 각본 수용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35, 39-67.
- 박윤환, 정혜원 (2013). 수도권 청소년 성매매의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7(1), 109-151.
- 박지선 (2015). 비행청소년의 전과 유무에 따른 제반 특성 및 위험 요인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 6(2), 71-84.
- 백혜영, 강현아 (2016). 가출청소년 정책 분석. **교정복지연구**, 43, 33-66.
-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진천: 법무연수원.
- 시민건강연구소 (2018).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서울: 낮은산.
- 여성가족부 (2018).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tSn=706633](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tSn=706633)에서 2019년 7월 26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9a). **청소년통계**.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b).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c).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세종: 여성가족부.
- 오봉욱 (2019).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 영향요인 분석. **인문사회** 21, 10(3), 1709-1719.
- 오세연 (2018). 가출패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대상자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2), 177-200.
- 유서구 (2017). 가출패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비관사회정책**, 54, 52-80.
- 유진이, 허일수 (2018). 중장기청소년쉼터 여자청소년들의 SNS 사용 분석. **다문화이동 청소년연구**, 3(2), 67-97.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81, 175-202.
- 윤희중 (2015). 지역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범죄통제에 대한 인식: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0(1), 383-410.
- 이명우, 황진아, 박한호 (2014).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무질서 감소의 매개효과 측정. **한국경찰학회보**, 46, 73-101.

- 이선범. (2018). 경찰활동,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구조적 관계. **경찰학논총**, 13(1), 57-79.
- 이시연 (2018). 청소년 '가출팸'의 현황과 대책. **지역과 문화**, 5(1), 85-101.
- 이창훈, 안계원, 김원기 (2017).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된 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3, 1-14.
-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2), 125-147.
- 정부24 (2019).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74237>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 정진성 (2010). 무질서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론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 227-258.
- 치안정책연구소 (2013).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연구**. 아산: 치안정책연구소.
- 최순실, 이은영 (2018). 강력범죄 가해자 가족 지원 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56, 165-187.
- 최열, 공윤경 (2008). 근린환경 무질서에 대한 주민인식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3(2), 193-206.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지태 (2010).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형사정책연구**, 7-51.
- 홍서아, 추봉조. (2018). 경찰의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교정연구**, 28(1), 111-136.
- Akers, R. L, Sellers, C. S., & Jennings, W. G. (2017).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4324/9781315062723
- Andrews, A. R., Lopez, C. M., Snyder, A., Saunders, B., & Kilpatrick, D. G. (2018). Polyvictimization, related symptoms, and familial and neighborhood contexts as longitudinal mediators of racial/ethnic disparities in violence exposure across adolescence.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14. doi:10.1007/s1090

- Anderson, E. (1999). *Code of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W. W. Norton. doi:10.5860/choice.37-2223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amby, S. L. (2005).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9*(11), 1297-1312. doi:10.1016/j.chiabu.2005.06.005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1), 7-26. doi:10.1016/j.chiabu.2006.06.008
- Finkelhor, D. (2008). *Childhood victimization: Violence, crime, and abuse in the lives of young people*.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57/sj.2014.22
- Finkelhor, D., Turner, H., Ormrod, R., & Hamby, S. L. (2009). Violence, abuse, and crime exposure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Pediatrics, 124*(5), 1411. doi:10.1542/peds.2009-0467
- Finkelhor, D., Turner, H., Hamby, S. L., & Ormrod, R. (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to Multi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 Finkelhor, D., Turner, H. A., Shattuck, A., & Hamby, S. L. (2013). Violence, crime, and abuse exposure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n update. *JAMA pediatrics, 167*(7), 614-621. doi:10.1001/jamapediatrics.2013.42
- Franklin, T. W., Franklin, C. A., & Fearn, N.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2), 204-227. doi:10.1007/s11211-008-0069-9
- Heerde, J. A., & Hemphill, S. A. (2016). Stealing and being stolen from: Perpetration of property offenses and property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youth: A systematic review. *Youth & Society, 48*(2), 265-300. doi:10.1177/0044118X13490763
- Johnson, K. D. (2010). Juvenile runaways.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pecific guides series guide No. 37. doi:10.1037/e497722006-001.
-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 S., & Gould, M. S.

-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2), 166-180. doi:10.1521/suli.2008.38.2.166
- Morewitz, S. J. (2016). Police Responses to Runaway and Homeless Youth. *In Runaway and Homeless Youth* (pp. 175-185). Springer, Cham. doi:10.1007/978-3-319-30863-0\_17
- Perkins, D. D., & Taylor, R. B. (2002). Ecological assessments of community disorder: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crim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In *Ecological research to promote social change* (pp. 127-170). Boston, MA.: Springer. doi:10.1007/978-1-4615-0565-5\_6
- Roh, S., & Oliver, W. M. (2005).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upon fear of crime: Understanding the causal linkag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8(4), 670-683. doi:10.1108/13639510510628758
- Ross, C. E., & Jang, S. J. (2000). 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01-420. doi:10.1023/A:1005137713332
- Ross, C. E., & Mirowsky, J. (2009). Neighborhood disorder, subjective alienation, and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49-64. doi:10.1177/002214650905000104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 443-478. doi:10.1146/annurev.soc.28.110601.141114
- Turner, H. A., Shattuck, A., Hamby, S., & Finkelhor, D. (2013). Community disorder, victimization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a national sample of you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4(2), 258-275. doi:10.1037/e529382014-218
- Turner, H. A., Shattuck, A., Finkelhor, D., & Hamby, S. (2017). Effects of

poly-victimization on adolescent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5), 755-780. doi:10.1177/0886260515586376

Walsh S, Donaldson R. (2010). Invited commentary: national safe place: Meeting the immediate needs of runaway and homeless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437-445. doi:10.1007/s10964-010-9522-9

Williams, L. M. (2010). Harm and resilience among prostituted teen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victimisation and survival. *Social Policy and Society*, 9(2), 243-254. doi:10.1017/s1474746409990376

Wilson, H. W., Stover, C. S., & Berkowitz, S. J. (2009). Research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violence exposure and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7), 769-779. doi:10.1111/j.1469-7610.2008.01974.x

## ABSTRACT

### Runaway youth and poly-victimization: Aggravating effect of community disorders\*

Kim, Joonbeom\*\* · Choi, Yu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unaway youth and poly-victimization, with a focus on the aggravating effect of community disorders. Cross-sectional data taken from 7,109 middle and high school aged adolescents were obtain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4.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logistic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ere conducted utilizing both the Mplus 6.0 and Stata 1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2.6% (n=186) of participants had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and those subjects were more vulnerable to be exposed to almost all sub-types of poly-victimization. Second, three profiles with levels of community disorders were identified, and the higher level of disorders were associated with the greater level of poly-victimization. Third,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of having run away from home showed larger aggravating effect as the level of community disorder rose toward poly-victimization than those from the non-experienced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mitigating the risks of poly-victimization among runaway youth were discussed.

Key Words: runaway, poly-victimization, aggravating effect, latent profile analysi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투고일: 2019. 6. 10, 심사일: 2019. 8. 2, 심사완료일: 2019. 8. 12

---

\* This article was based on data from “Criminal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4

\*\* Yonsei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